

교회 목표

신뢰한 예배
친구인문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우 사랑

주간 중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중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신년예배메시지

내가 내 교회 를 세우 리 니

(마태복음 16:15~20)

2007년, 보혈로 가득한 교회, 보혈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
이제, 은총으로 가득한 2007년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내일(1월 1일), 신년 감사예배 오전 9시·11시 가족연합예배

예루살렘 찬양대

이번 주(1월 5일) 금요일 집회 시, 찬양 시작

65세 이상의 성도님들로 조직된 예루살렘 찬양대가 이번 주 금요일 집회 시 첫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음악적 자질이 아닌, 오직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모인 찬양 대이기에 금요일 집회가 더욱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강대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18)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예루살렘 찬양대원으로 섬길 모든 일꾼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찬양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찬양대를 섬길 임원들도 확정되었고, 임의 신성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입회원서는 사무국에 비치,
예루살렘 찬양대 임원 명단은 본지 4면 참조.

2007년 제1차 성찬식

다음 주일(1월 7일),
1부~5부 예배 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할 2007년의 첫 성찬식이 다음 주일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령이 자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회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

주님의 교회는 보혈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기신 삶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세우기가 할 참 교회의 모습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보혈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를 소망하며 온전한 기도로 주의 만찬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마 26:28).

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오직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도 안 됩니다(레 10:3 ; 요 17:5).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행 1:11).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교회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현교회도 어느 훌륭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마 16:24).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마 16:27 ; 요 15:19). 만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이 세상은 교회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엡 2:16,19).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지 못할 때 교린도교회처럼 문제가 생깁니다(고전 1:1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중현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아멘.

1월 교회 일정

- 1월(월) 신년 감사예배
- 4월(목) 영아부~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 7월(주) 1차 성찬식(1부~5부 예배)
2차 CMTC 훈련②(찬양예배 후)
- 8월(월) 고등부 수련회(10일까지)
- 10월(수) 예배위원회 헌신예배(수요 2부 예배)
정기당회(수요 2부 예배 후)
- 12월(금) 중등부 겨울 성경학교
- 14월(주) 2차 CMTC 훈련②(찬양예배 후)
- 17월(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
(여전도회, 수요 1부 예배 후)
- 20월(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
(남전도회, 오후 2시)
- 28월(주) 선교 주일

COMMUNION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inthians 11:23~26)

Communion is an act of worship that Christians do until Jesus Christ comes again. All Christians are commanded to participate in this holy sacrament. One of the most crucial practices in taking Communion is proclaiming the Lord's death. Holy Communion is centered on Jesus Christ's death, but it also focuses on His return. These two significant factors are the basis for each Christian's thinking during this service. It is imperative and mandatory that you know what Jesus Christ's death and return means before receiving Communion. Every believer needs to understand that the Lord God became a man (incarnated) in the person of Jesus to save the world. This Jesus died on a cross for you, resurrected, ascended into heaven, and will one day be back. Do you really believe that Jesus came, died, resurrected, ascended, and will be back? Each Holy Communion service that you partake in is of great importance because it was Jesus' last ministerial act before the cross.

Did you know that Jesus promised that He would come back? He sai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3). Do you believe His promise? Did you know that God's angels also promised that Jesus would come back? They told His disciples as they were watching Jesus ascen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 (Acts 1:11). Do you believe the angels? Did you know that the apostles promised that Jesus would come back? 1 Thessalonians 4:16 says,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Do you believe the apostles? Do you really believe that Jesus is coming?

Jesus instituted Communion at His last supper. As a Christian, you are to continually meet for Communion until He comes. Through the centuries all Christians have kept this appointment. Here, at the Lord's Table, you come to remember His death, to rededicate your life to Him, to forgive others, and to obey His command regardless of any conditions. What does Communion mean to you? Is it a faithless and repetitious ceremony, or is it an appreciative and loving celebration? Do you take the elements in anticipation of Christ's

return? Do you eat His bread and drink from His cup remembering His death and what it means to you?

In the Communion Service, the message of the cross gives you endurance until Christ's return. Time may change but not the message. Your culture and lifestyle may change, but the gospel is unchangeable. All sinners still need salvation. Salvation was purchased at the cross, not through your morals or good behaviors, but through Christ's death. The sacrificial lamb in the Old Testament is symbolic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Without the blood of Christ, there can be no remission of sin, "And according to the Law, one may almost say, all things ar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Heb. 9:22). The message of the cross is the message of salvation. Salvation cannot be bought with money. It cannot be had through effort. 1 Peter 1:18&19 clearly say, "knowing that you were not redeemed with perishable things like silver or gold from your futile way of life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 You can see how important the message of the cross is in the Communion service. It is the theme of heaven's song. In this life, whatever things happen, it is the cross that you can run to with pride. The power of the cross changes your life until Jesus comes.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Rom. 1:16). Only the blood of Christ cleanses you from all sin,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1 Jn. 1:7). Amen. Nothing else takes away the penalty of death. Many people still think being good or doing good is the answer, but it is not. Jesus is the answer.

My dear friend, you need to remember Christ's death, and keep the cross and His coming close at heart. Remembering His death is more than taking the elements, it is a celebration of His love. It gives thanks for His grace, and praises God for His sacrifice. It is a moment to rejoice in your salvation. Are you ready for Communion? Let us come together now for the first Communion service of 2007. 

주의 만찬

⁽²³⁾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²⁶⁾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3~26)



김성관 목사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예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주의 만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심으로 두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의 재림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야말로 성찬식을 행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생각해야 할 중요한 토대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의 의미를 아는 것은 꼭 필요할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곧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사역이었기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재림을 소망하라

여러분은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천사들의 이 말을 믿으십니까?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6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감사와 사랑으로 찬양하라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만찬에 임해야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이행해 왔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며 다른 이를 용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을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감사와 사랑으로 풍성한 축하 예식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것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떡과 잔

을 받으십니까?

인내하며 대대하라

주의 만찬을 통해 선포되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시간은 바쁘더라도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문화와 생활 방식은 변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불변합니다. 모든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대가는 우리의 도덕이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미 치러졌습니다. 구약의 희생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죄 씻음도 없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메르도전서 1:18,19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십자가의 메시지가 성찬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찬송의 주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대대히 달려 나갈 수 있는 곳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아멘. 다른 것으로는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 그 대답이십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간직하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심령에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 떡과 잔을 받는 것 이상임을 깨닫는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만찬에 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와 2007년의 첫 번째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시 3:1~8)



어린 시절의 다윗은 매우 소외되어 있었다. 형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큰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양을 치는 일을 하며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팔레스틴 지역을 완전히 통일한 최초의 왕이 되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 찬양하였다. 이런 그에게 큰 환난이 왔다. 이전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시련 3편에서 다윗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원수들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 암살범의 반역으로 쫓기는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맨발로 도망하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 3:1,2). 이처럼 다윗이 처한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는 현실이 아닌 주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기에 다윗은 세상이 아닌 말씀에 초점을 두었다.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 드린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여호와여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시 3:3). 현재 다윗이 처한 형편은 최악이었지만 다윗은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건지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패이신 주님을 믿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엡 6:16).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이 때 주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 큰 고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음이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시 33:20). “여호와 하나님은 대대로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위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 함이니이다”(시 84:11). 나의 방패이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주님을 향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렐 29:12). 악한 원수들의 공격에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며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니라”(시 3:4).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마 7:7). 그러므로 모든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자.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공급은 창조주께서 친히 채워시는 공급이라는 것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시 3:5).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 안에 평안함이 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막으며 주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평안함이 있다. 그래서 다윗의 현실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천만 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시 3:6). 다윗의 이 고백처럼 모든 것이 매순간 자신을 공격할지라도 두려움은 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주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 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그 안에 있으면 평안만이 넘친다. “대저 하나님께로선 날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영적 전쟁을 위한 최고의 무기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참 평안은 없다. 예수님을 믿을 때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롬 8:15). 두려워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총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요일 4:18).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주는 나의 승리의 근원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시 3:7,8).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다(마 24:35). 예수님께서 영웅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마 25:31~34).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7,58).

오늘은 2006년의 마지막 수요일이다. 이 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자. 특히 우리의 소망이 ‘영원’에 있음을 감사하자.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것에 둘 때 우리는 침몰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 자기를 믿어보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참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한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며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어 우리를 참 평안으로 충만케 한다. 결국 승리는 십자가의 보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천 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임원 명단

대 장	노광원			
부대장	안석원	최대원	신일순	박필래
총 무	이호일	정경자	백희숙	명정옥
	김인술	권 철		
부총무	조영철	박종현	원길자	우순성
	김유정	박옥식	유재진(목사)	류진희(전도사)
	김대식(장로)			
봉사부	신소자	고영혜	안정희	홍혜숙
	이이제	남정애	이용현	강영환
	박창성	안노수		
회 계	박필래			
부회계	오화자	김은희		
지 휘	차신득			
부지휘	유숙영			
반 주	김희영			
피트즈	S/김 순	현재식	A/정정자	서계실
	T/박순호	박미연	B/정재복	강진혁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일꾼들, 제1교육위원회



조종환 (창로, 제1교육위원장)

제1교육위원회는 영아부부터 중등 3부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부서가 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2007년 겨울 성경학교의 주제와 방향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나니”(마 16:18)에 맞추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 일꾼으로 훈련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선생님들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교사는 약 450여 명입니다. 이분들이 먼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복음으로 깨어지고 겸손히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성실히 도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마 16:16)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선생님들의 심령에 매순간 떠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각 부서에서의 기도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선생님들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매년 2회 이상의 영성훈련과 계절학교 강습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말발에 순종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제 아무리 완전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기에 오직 무릎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엡 6:18).

제1교육위원회에 속한 학생들은 천령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천령교회의 미래가 아닌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양육되는 천국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아가들을 위한 영아부로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 1부, 중등 2부, 중등 3부까지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세상의 일을 좇고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를 전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롬 15:30).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교회학교로 보내주시고요. 현재 1천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부모님이 본 교회에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학업보다 더 소중한 복음으로 풍성한 천령교회 교회학교로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행 4:12).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1교육위원회는 선교위원회의 지도 아래 단기 선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행 13:47). 2006년에도 258명의 학생들이 선교를 다녀왔으며 이미 2007년 선교를 위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중 도서관은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으로 가득한 도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요 5:39). 계속해서 제1교육위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일꾼으로 모든 학생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든든합니다!



다급한 일이 있을 때에 ‘주여’란 말이 절로 나오는 걸 보면서 급박할 작 나왔습니다. 교회에 가야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마음의 담이 너무도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분의 소개로 ‘천국도원’에 가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생활로 매사에 감미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일 하루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시간으로 비워 두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일에 참고 기다려 사람으로 불려진 기도가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전도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구해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배웠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민중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에 소속되길 원했습니다. 구원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알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회개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련된 점은 예수님을 통해 나 자신을 알게 되면서 감수애할 줄도 알았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 맘 속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본심을 깨닫습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를 깨닫고 소망하여 새가족부를 떠났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8년 전 섬김에서 사임되어 계속 교회에 나왔으나 올해 5월에서야 등록하여 6개월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의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참 사랑의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본심을 알았습니다. 주일은 제가 아주 기쁘고 즐겁게 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회개의 날입니다. 늘 주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시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새가족부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새가족부에 등록하였고, 교회에 오지 4년 만에 부끄러움 없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도 기쁨으로 주님의 뜻으로 알고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자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통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쁨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설에 감사하며 남들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싶은 것만인 마음이 있던 터에 같은 동네에 사는 전사님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요 나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어 오신 분이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마음이 강해지고,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게 훨씬 쉽고 편해졌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의 인도로 교회에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감동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평안을 받았고 예수님께만 인생을 두게 된 것이 같아 든든하고, 사랑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감미로운 줄을 느끼고 주님을 꼭 꼭 지킬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즐겁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 항상 지켜봐 주시고 뭐든 알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여러 분들을 알게 되었고 제 주위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주신대로 영감하여 하며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박주환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동안 제가 모르고 살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느낄 수 있고 성경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정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같은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들어 보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조준호

지난 5월 사역을 해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천령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언을 짐을 다 내려놓게 되어 마음이 편해지며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든든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김경봉

남자친구의 전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미

감사 중의 감사

나에게 감사한 일들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감사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면 우리는 고통이 가득한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건강한 것도 감사할 뿐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것도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옛날에 교회가 없는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교회가 있어도 못 믿게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QT를 하고 법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조해리(소년부)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중등 2부에 올라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때론 말씀보다 학교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이 더 좋으며,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주님을 멀리하며,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기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요. 아직은 무엇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주님께 더욱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더욱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꼭 되고 싶어요. 주님, 저와 항상 동행해 주세요.

김한나(중등 2부)

오직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총!' 함께 선교를 다녀온 '권사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단어이다. '주님의 은총!' 선교지에서 소나기 후 맑은 날씨와 아름다운 경관을 볼 때,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 때, 눈물 흘리며 영혼들을 부여잡고 부르던 감격의 찬송 후에,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언제나 하시던 말씀, '주님의 은총!'

그렇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 아니던가? 너무나 바쁜 현실은 감사할 마음조차 패악이 버리지 않았던가? 감사치 못한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오지 않았던가? 성령님보다 앞선 의욕으로,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주님의 은총이 없는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보잘것없이 보이고, 무능하게 죽 늘어져 그저 간신히 달려 있던 소록도에서 만났던 십자가 위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회개'의 눈물로, 나를 내려놓으라! 십자가의 주님 앞에 저 빛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리고 나 노래하리.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노래하리. 2007년 새해에도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삶을 소망하리.' 아멘.

안은민(안수집사, 15교구)

진정한 내려놓음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고급차를 타고 싶고, 일류 대학에 가고 싶고,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고, 모든 대학 속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진정한 내려놓음을 얻을 것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세상의 그 무언가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의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몹시 갈망하지만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내가 선 자리에서 복음 증거자의 길을 걷기 위해 준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부딪히는 모든 일에 내 기쁨과 행복은 무시하고 주님의 기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욕을 먹어도 초롱을 받아도 오해를 당해도 억울해도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복으로는 비교하고 설명할 수 없는 데 세상의 복들로 그 크심과 사랑을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증인 되는 일'이고, 만약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면 그것을 또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 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강은미(미사, 5교구)

예수님으로 가득한 구역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구역 식구들을 볼 때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생생히 느껴진다. 오래 전 남편의 가족을 받은 총격으로 치매 정 단계에 이른 C집사님은 구역예배 당일 30분 전에 전화를 해야 기억하고 나오실 수가 없다. 그럼에도 구역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으신다. 또 암 수술을 받은 뒤 이사로신 M집사님은 몸이 회복되지 뛰어난 음식 솜씨로 모두에게 작은 기쁨을 주신다. 드문드문 있는 버스를 타고 등용할 차가 기다리는 큰 도로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함을 무릅쓰고서도 수평리에서, 부발읍에서 예배에 꼭 나오시는 S권사님과 B자매님.

연약하고 어린 구역장을 섬겨 주시며 차량으로 늘 봉사하시는 부지역장 권사님을 통해서 사람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큰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셨음에도 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D집사님. 예배 장소로 당시 집을 제공하기를 즐겨하시는 G집사님. 어린아이들을 안고 힘겹게 예배에 나오면서도 늘 기뻐하는 사랑스런 지후 엄마!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구역 식구들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정말로 기다려진다. 그리고 정말로 기쁘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역식구들을 한 자리에 만날 이유가 없는, 잊길될 수밖에 없는 삶들이 아닌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만남이 아닌, 죽음을 넘어서 하늘나라에서 모두 만날 것을 소망하기에 우리의 구역 모임은 항상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다.

김지영(집사, 7교구)



새벽의 창을 열며

‘주님’ 만나고 싶어
전화를 걸 때면
나는 주님의 음성어 두렵답니다.
행여 나를 모르신다 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목이 메인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는 약속이 두렵답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도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예뻐해줘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나에게 고운 새 이름을 주셨답니다.

주님의 싱그러운 향기를 ‘늘’ 깨달으며
그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
이 밤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눈을 흘리는
나에게 “네 사랑” 하시며 찾아주셔서
내게 두려운 마음, 죄스런 마음 다 씻기었다고
주님과 사랑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 새벽이 나에게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또 다시 새로운 날을 뜨며
새벽의 창을 열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박경희(집사, 1교구)

난 그 시절에 무엇을 했을까?

어린 출로만 앞섰던 대학부 자제들이
푼들 풍쳐서 장제식당의 조문객 시중을 드
는 것을 보니 그렇게 어스스러워 보일 수
가 없습니다. ‘난 그 시절에 무엇을 했을
까?’ 생각해 보니 참으로 허망한 시간을
보내 듯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
었기에 예전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꽤
나 혐오하던 사람 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종교가 뭐냐고, 누구를 믿느냐고” 물으면
자신있게 “나를 믿는다”고 하던 교만한 자
종의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을 가질 수 있음에도 그 때 무지에서 그럴
수 없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어린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
리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의 길을 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대학부 교사로 섬기는 지금! 대학생 때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 대학부 시절을 간접
적으로나마 체험하게 해 주신 예수님이 정
말 좋고 감사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던 제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용하
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은혜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때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대학부
자제들이 아름다운 시절에 이미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
나.

공성연(교사, 대학부)

CMTC 훈련 메시지 ②

2007년 단기 선교정책과 방향

전 성도가 동참하는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총천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 복음에 헌신된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단기 선교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내 외국인 선교부 사역 및 현지인 선교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과 나아가 선교지에 보혜사 증거되는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전도족, 복음을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지역을 찾아 선교하는 개척선교, 한국인 선교사나 현지인교회 등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독립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전하여,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에 주력하고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선교 대상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미전도족이나 미전도 지역이 많은 국가나 개신교 복음화를 감안하여 선교위원회에서 추천한 1차 추천국가 중에서 우선으로 선정되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선교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교팀 단기 선교팀으로 파송을 받으려면 4번의 심사 또는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최초 1차 면담은 팀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영적 준비사항과 선교 및 훈련계획 등을 점검하며, 파송 7주 전 2차 심사는 영성심사로 팀 전원을 상대로 선교위원회 인사목사가 실시합니다. 파송 5주 전에는 3차 언어 및 행정심사로 역시 팀 전원을 상대로 선교위원회 위원들이 실시합니다. 마지막 4차 점검은 파송 2주 전에 팀 전원을 상대로 선교위원회이 최종 준비상태를 점검합니다.

총천교회에 등록하고 만 1년이 지난 세례교인으로 공교회 출석, 십일조 생활을 하는 사람, 1인 1명 이상 전도한 자, 자원봉사 2회 이상 참가자, 신체의 질병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이면 누구나 단기선교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팀원으로 구성된 자들은 선교훈련(CMTC) 및 1일 수련회(2007년 1월 13일, 3월 3일, 6월 2일, 3회 중 1회 이상 참석), 20회 이상의 지체 및 훈련, 현지 언어 습득을 위한 언어훈련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는 더욱 철저한 영성훈련이 강조됩니다. 총천의 성도나 소속 교회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타 교회 교인이나 누구에게나 단기 선교에 참여할 자격은 자유롭게 부여하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을 선교위원회는 파송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영성심사와 영성훈련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보혈을 전하는 선교 선교는 영적 전염입니다. 따라서 보혈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일이 제일 중요됩니다. 보혈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이들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선교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선교 방향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성령의 은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비유의 선교를 주관하는 주님께 우리 교회의 선교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더욱 자기를 부리고 자기 십자가를 짚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2007년 한 해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보혈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선교지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소망하여 더욱 기도합니다.

(선교위원회)

♡ 새 · 가 · 족 · 을 · 관 · 영 · 합 · 나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666	이혁영	19	중동3부	김성민(4)	2704	한지민	19	고동부	김효미(7)
2667	김수지	19	중동3부	조진형(8)	2705	김윤정	19	대학부	성순우(19)
2668	유창현	3	중동2부	이원진(12)	2706	임혜정	19	대학부	황다은(4)
2669	정인정	19	중동2부	남은혜(12)	2707	나사리	19	외선부	배지현(11)
2670	고은혜	19	중동3부	김현미(4)	2708	정미선(19)	19	외선부	유미도(9)
2671	강예진	19	청년1부	홍정호(18)	2709	이민진	19	고동부	김성민(14)
2672	한진희	19	중동3부	이영훈(1)	2710	양지훈	19	대학부	이영환(1)
2673	이옥나	16	청년1부	김요한(16)	2711	허영광	19	예배부	김희정(19)
2674	조지애	19	청년1부	김민정(14)	2712	아름혜	19	외선부	최희연(7)
2675	최수남	19	고동부	강성진(13)	2713	강국순	19	외선부	김원준(1)
2676	김충현	19	중동3부	이승미(14)	2714	이희고	19	외선부	정봉우(17)
2677	이준희	2	청년2부	김유영(4)	2715	도 민	19	외선부	황희미(7)
2678	정재호	19	청년1부		2716	황창하	19	외선부	정봉우(17)
2679	나함구미	19	외선부	최정일(11)	2717	박복희	19	예배부	박정민(19)
2680	연 팀	19	외선부	최정일(11)	2718	김현영	19	대학부	이영환(14)
2681	한종록	1	청년1부	이경민(1)	2719	김진영	19	대학부	김소은(4)
2682	강동주	19	고동부	노주희(8)	2720	김윤준	19	대학부	이진규(6)
2683	하학수	19	고동부	김성진(10)	2721	계진석	3	청년1부	구주식(1)
2684	김민정	19	중동2부	박선진(7)	2722	김연희	3	청년2부	구주식(1)
2685	박지현	19	중동2부	이영진(1)	2723	저리자	19	외선부	최희연(1)
2686	정영은	19	고동부	정지현(1)	2724	열매노을	19	외선부	김창희(16)
2687	이준호	16	청년3부	정영환(1)	2725	무르레	19	외선부	이영환(10)
2688	곽동주	19	대학부	이슬기(10)	2726	에르문	19	외선부	김효준(10)
2689	최종호	19	중동3부	최진서(8)	2727	말씀의대	19	외선부	심정민(1)
2690	김미경	19	대학부	오민정(4)	2728	이재자아	19	외선부	김소은(16)
2691	유정우	10	청년1부	김정현(14)	2729	이진호	19	대학부	이민영(8)
2692	김금과	19	청년1부	노은경(14)	2730	리진조	19	외선부	
2693	최정일	10	청년2부	김영환(14)	2731	산	19	외선부	
2694	변재호	15	청년2부	박영숙(6)	2732	아라무신	19	외선부	
2695	강승현	19	고동부	고규민(7)	2733	영향호	16	청년1부	김서우영(16)
2696	박지훈	19	고동부	김민정(8)	2734	정창호	16	청년2부	이은진(10)
2697	노현우	19	대학부	박성민(19)	2735	김진희	12	청년2부	이은진(10)
2698	김준호	15	청년2부	최진서(15)	2736	김재민	19	대학부	
2699	김순호	15	청년3부	정순희(15)	2737	한정진	19	중동3부	민은교(6)
2700	서지운	19	고동부	김창호(8)	2738	이민정	19	중동3부	정창호(6)
2701	한이경	19	청년1부	수상(16)	2739	정승화	19	대학부	
2702	류 민	19	고동부	홍수준(5)	2740	정민정	19	청년2부	이승규(19)
2703	김도훈	19	고동부	김태민(3)					

※ 총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분	시간	장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장 부	오후 12:15	갈 밀 리 홀
장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다 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다 부	(주) 02:30 오후 4:30 (수) 02:30 오후 9:00	선교관 1층
양육부	오후 12:15	배 다 니 홀
인원집	주요교육	교육관 107호
인원교육	주요교육	충원회식지관
인원교육	오후 11:00	이 면 홀

이종대	정병민	박기진	류병희	여국경
15.2구	15.2구	15.2구	15.2구	15.2구
안정환	나광영	정진호	고광환	최진진
15.2구	15.2구	15.2구	15.2구	15.2구
김기환	장 훈	안지현	이희식	이성호
15.2구	15.2구	15.2구	15.2구	15.2구
하종훈	한지민	정종신	양재용	김종현
15.2구	15.2구	15.2구	15.2구	15.2구
최규기	이영일	이경준	이창수	김준호
15.2구	15.2구	15.2구	15.2구	15.2구
윤수진	황진근	유재민	강명구	전성호
15.2구	15.2구	15.2구	15.2구	15.2구
김길경	이윤진	양태선	유성태	유원진
15.2구	15.2구	15.2구	15.2구	15.2구

■ 연도서

윤인식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15.2구	15.2구	15.2구	15.2구	15.2구
김발자	안승민	김영진	강덕필	최문진
15.2구	15.2구	15.2구	15.2구	15.2구
전은희	김장자	김지희	이혜순A	류진진
15.2구	15.2구	15.2구	15.2구	15.2구
한성일	임태두	장명미	홍지자	이대훈
15.2구	15.2구	15.2구	15.2구	15.2구
강호수	전영희	이혜순		
15.2구	15.2구	15.2구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치휘자 서문진 김만철 ■ 전임독주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영희 ■ 전 교수 송호찬